



북부경찰, 피싱예방 은행원에 감사장 수여

기지를 발휘해 수천만원대 고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원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사진)

광주 북부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피해를 예방한 북광주농협 연제지점 A과장에게 감사장과 부상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A과장은 지난 23일 오전 10시47분께 해당 지점을 방문한 노인이 통화를 하며 아내의 사망보험금 3000만원을 인출하려 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김용관 북부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500만원 이상의 고액 인출 시 경찰과 은행 간 의무신고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있다. 앞으로도 금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은행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감사를 전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 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2명 위촉

광주 동구의회가 입법·법률 고문 2명을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동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인 이번 위촉은 세분화되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입법 및 법률 고문을 신규 위촉,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현실성 있는 법률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2년이며 자치법규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자문, 의안 심사처리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대한 전문적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입법 고문으로 위촉된 최민수 소장은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고 현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수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고단비 변호사는 'K&J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현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법률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적 지식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현기 기자



광주소방학교, 신입 소방공무원 65명 입교식

광주시소방학교는 지난 23일 광주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신입 소방공무원 65명과 교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03기 신입 교육 소방사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 (사진)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입교한 교육생 65명(광주 57명, 전남 8명)은 내년 3월7일까지 24주간 교육훈련을 받으며, 소방 공무원으로서 소양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이론 및 현장 실무 등을 배우게 된다.

교육을 마치면 광주와 전남지역 일선 소방관서로 배치돼 각종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동하 광주소방학교장은 “명예·신뢰·헌신의 소방정신을 바탕으로 긴장감과 인내심, 동료애를 발휘해 교육훈련을 잘 이수해 주기를 바란다”며 “현장에 강하고 가슴이 따뜻한 멋진 소방관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 남구 송암동 지사협, 김치 담그기 체험

광주 남구 송암동 자생단체는 지난 3월부터 광주 김치 홍보를 위해 광주김치타운과 손잡고 협력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협약 체결에 따라 송암동 주민자치회에서 4월부터 7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어린이 김치 담그기 체험을 진행했고, 9월과 10월에는 송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르신 김치 담그기 체험을 진행한다.

지난 21일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오이송송이 담그기를, 오는 10월31일에는 배추김치 담그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우리 동 어르신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며 이웃 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김치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박물관 해설사 투어까지 받을 수 있는 알찬 체험이었다”며 “앞으로도 복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특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한수원 영·섬유역본부, 취약계층 아동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지난 23일 광주시에 소재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편한집’ 보호시설 기부를 통한 지역 상생 공헌활동을 전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이날 영·섬유역본부 임직원들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관을 방문해 유아용 침구세트 등 복지물품을 전달하고 시설관 직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주인호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장은 “이번 지역 상생 공헌 활동을 통해 복지 시설의 보호를 받는 다양한 계층의 거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하는 공기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



광주 남부소방, 요양시설 화재예방 현장지도

광주 남부소방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요양시설 12개소를 방문해 피난시설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화재 예방 지도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요양시설은 고령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피난 약자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려워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에 화재 시 초기 대응을 위해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숙지하고,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

△대피 공간 및 피난시설 설치 확충 △입원실의 저층이나 피난층 배치 △인명 정보 현황판 부착 △피난 유도라인 설치 등을 통해 입원환자 안전을 위한 피난·대피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 역할 분담을 통한 대피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찬 기자

광주 동구, ‘동명커피산책’ 빛날 플레이어 30일까지 모집

광주 동구가 다음달 26일 동명동 카페거리에서 열리는 ‘2024 동명커피산책’에 참여할 플레이어를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포스터)

모집 분야는 바리스타들의 핸드드립 커피 어워드 ‘저스트 어워드(Just Award)’ 참여 부스 30개소, 동명동 카페거리 카페 투어 프로그램인 ‘노런 저스트 워크(No Run, Just Walk)’에 참여하는 카페 20개소다.

‘저스트 어워드’의 지원 자격은 광주 시에서 커피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커피 크리에이터 개인 또는 단체이며, 동명동과 동구 사업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노런 저스트 워크’는 동명동 내 카페 사업자를 등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축제 기간에 신규 메뉴를 출시하는 카페를 우대한다.

신청 접수는 이달 30일까지 이메일로 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플레이어는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누리집 또는 동명 커피 산책 운영국으



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민·상가 상생형 축제인 동명커피산책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동명동만의 특색 있는 커피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축제 주인공인 커피 크리에이터와 카페 운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장신영, ‘강경준 불륜 의혹’ 후 첫 방송… ‘미우새’ 출연

남편 강경준(41)의 불륜 의혹 및 소송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배우 장신영(40)이 내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에 복귀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장신영은 내달 2일 SBS TV ‘미운 우리 새끼’ 녹화를 진행한다.

스페셜 MC로 출연하는 장신영이 강경준 불륜 의혹에 대해 언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강경준은 지난해 12월26일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유부녀 A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텔레그램 메시지 등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소송전은 첫 변론에서 법원이 강경준의 인낙(전면 긍정) 결정을 내리며 빠르게 마무리됐다. 사실상 불륜을 인정한 셈이다.

당시 강경준은 “오해를 풀고자 소송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당사자가 받을 마음의 상처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후 장신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오직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경준과 장신영은 지난 2018년 5년 열애 끝에 결혼했으며 강경준은 장신영이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큰 아들 정안(16), 둘째 아들 정우(4)와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들 가족은 해당 사건으로 하차했다.

곽지혜 기자

길건, ‘정상납 대신 가라오케’ 전 소속사 대표 만행 폭로

가수 길건이 과거 정상납을 대신해 가라오케에서 춤을 추게 했던 전 소속사 대표의 만행을 폭로했다. (사진)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주간 트로트’에는 ‘길건, 정상납만 안 하면 계약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길건은 “(신인 시절 소속사 랑) 계약할 당시 대표가 내 몸을 보더니 ‘너는 살도 빠지 말고 이대로 가자’고 했지만, 계약하는 순간 다이어트만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표가 가라오케를 투잡으로 하고 있었는데, 나를 새벽마다 불러내 ‘춤, 노래 좀 해라, 이분들이 투자를 해주실 분이다’라고 했다”며 “새벽 2시에 집 도착해서 초초가 됐는데 새벽 3시가 되면 거길(가라오케) 나가야 했다”고 털어놔다.

당시 길건은 ‘정상납만 안 시키면 소속사와 계약한다’는 조건까지 걸었다고 주장했다.



길건은 “한번은 너무 몸이 힘들니까 대표한테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다. 그러니까 대표가 ‘정상납은 안 시키잖아’라고 했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